교사의 꿈 '별따기'

광주·전남 내년 신규채용 대폭감축… 경쟁 치열

"교대·사대 진학 불안해요" 고교생들 상담 급증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중인 광주 A고교 2학년 고모(17)군은 요즘 장래의 꿈인 교사직을 포기할까 고민중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이 바뀌면서 신규 교사 채용이 대폭 감축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고 군은 "교사 채용이 축소되면 결국 교사되기가 그만큼 어렵게 된다는 말이 아니냐"면서 "아쉽지만, 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취업의 문이 좀 더 넓은 학과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부터 광주·전남 지역의 신규 교원 채용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사직을 꿈꿔왔던 고교생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선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사의 질 저하 및 인원 감축에 따른 교사 노령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과 일선 고교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정원을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를 4개군(郡)으로 나눠 26.07명(1군)에서 16.90명(4군)까지 교원 수를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학생 수와 학급수 등을 고려(7대3)해 정원을 배정했으나 학급수가 배제되면서 4군인 전남은 초등 290명, 중등 424명 등 714명이 줄었다. 다만 신설 학교 등이 있는 광주와 경기 등 2곳은 정원이 조금 늘었다.

그렇다고, 광주에서 대규모로 신규 교원이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광주는 늘어나는 교원 중 218명을 전남과 전북에서 전입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신규 중등 교사 채용 규모를 50명대로 대폭 축소해 임용시험을 준비해온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교원 축소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년 전국의 신규 채용 초등 교원수만 놓고보더라도 올해보다 1천300여명 줄어든 4천500여명으로 축소된다. 올해도 전년대비 1천600여명 정도의 신규 초등 교원이 감소했다.

또한 올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재학생은 803만1천964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명이나 감소하는 등 취학 아동 수가 급감하는 추세여서 교사 정원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교원도 상황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1999년 3만1천847명이던 중등 임용고시 지원자 수는 지난해 6만6천993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합격자는 4천964명으로 지원자 대비 7.4%에 불과했다.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광주에선 54명 모집에 2천330명이 몰려 43.1대1을, 전남에선 65명 모집에 1천749명이 응시해 26.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 한 고교 진학담당 교사는 "요즘들어 교직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타 학과로의 진학을 상담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면서 "교사직을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교사의 질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장 무 수확 한창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일 나주시 봉황면 운곡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김장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8년 전 고흥 노파 살해 혐의 60대 무죄

법원 "자백 신빙성 떨어지고 증거 불충분"

8년 전 고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최근 사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준호)는 2일 이웃에 사는 60대 노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으나 자백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 등도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월 9일 고흥군 A(여·65)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스카프로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근처 대나무밭으로 옮겨 옷을 모두 벗기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박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병원에 영아 버린 30대 입건

광주남부경찰은 2일 병원에 신생아를 유기한 A(여·33)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광주시 남구 기독병원에서 '혼자 사는 처지에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당일 새벽 출산한 딸을 병원에 남겨둔 채 달아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공직·토착비리 351명 검거

광주·전남 경찰, 한 달 간 특별 단속

단속무마 뇌물수수 사범 159명 최다

광주·전남 경찰이 최근 한 달간 공직·토착비리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51명(68건)의 비리 사범을 적발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된 공직·토착비리 단속 결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각각 106명(24건), 245명(44건)을 검거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단속무마 관련 뇌물수수가 159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 공사수주 관련 뇌물수수 14명(4.0%) ▲사이비 기자 갈취 11명(3.1%) ▲국가보조금 횡령 7명(2.0%) ▲기타 157명(44.7%) 등이었다. 기타에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남경찰청은 화물 차량의 과적 단속 과정에서 3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도로관리사무소 공무원 20명과 화물차주 등 15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경찰의 이번 적발로 그동안 과적 단속 과정에서 공공연히 이뤄져온 공무원과 화물차주 간의 '뒷돈'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한편, 전국에서는 이번 단속 기간에 1천648명(482건)의 공직·토착비리 사범이 경찰에 검거돼 85명이 구속되고 1천56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수주나 단속무마, 인사청탁 등 뇌물 수수가 371명(22%)이었고, 국가보조금 횡령 249명(15%), 사이비기자 갈취 139명(9%), 기타 889명(54%)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담양 교각 공사 현장 30대 인부 매몰 숨져

2일 오전 8시55분께 담양군 금성면 한 교각 공사현장에서 철골 해체 작업을 하던 인부 주모(35)씨가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파묻혀 4시간여 만에 구조됐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 등은 중장비 등을 동원해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께 흙을 걷어냈으나, 주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사진〉

경찰은 공사장에 쌓여있던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벽면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kwangju.co.kr

고의 교통사고로 3억 보험금 조폭 등 사기단 200여명 적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조직폭력배 등 보험사기 일당 2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목포 모 폭력조직원 김모(25)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25)씨 등 1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하고도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은 신모(24)씨 등 48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목포시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A(여·69)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366만원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61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목포 S폭력조직원들과 친구·선후배 사이로, 미리 가해자·피해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법규위반 차량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렌트차량의 경우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렌트카를 범행에 이용하는가 하면, 공범에게는 보험금 중 30% 가량을 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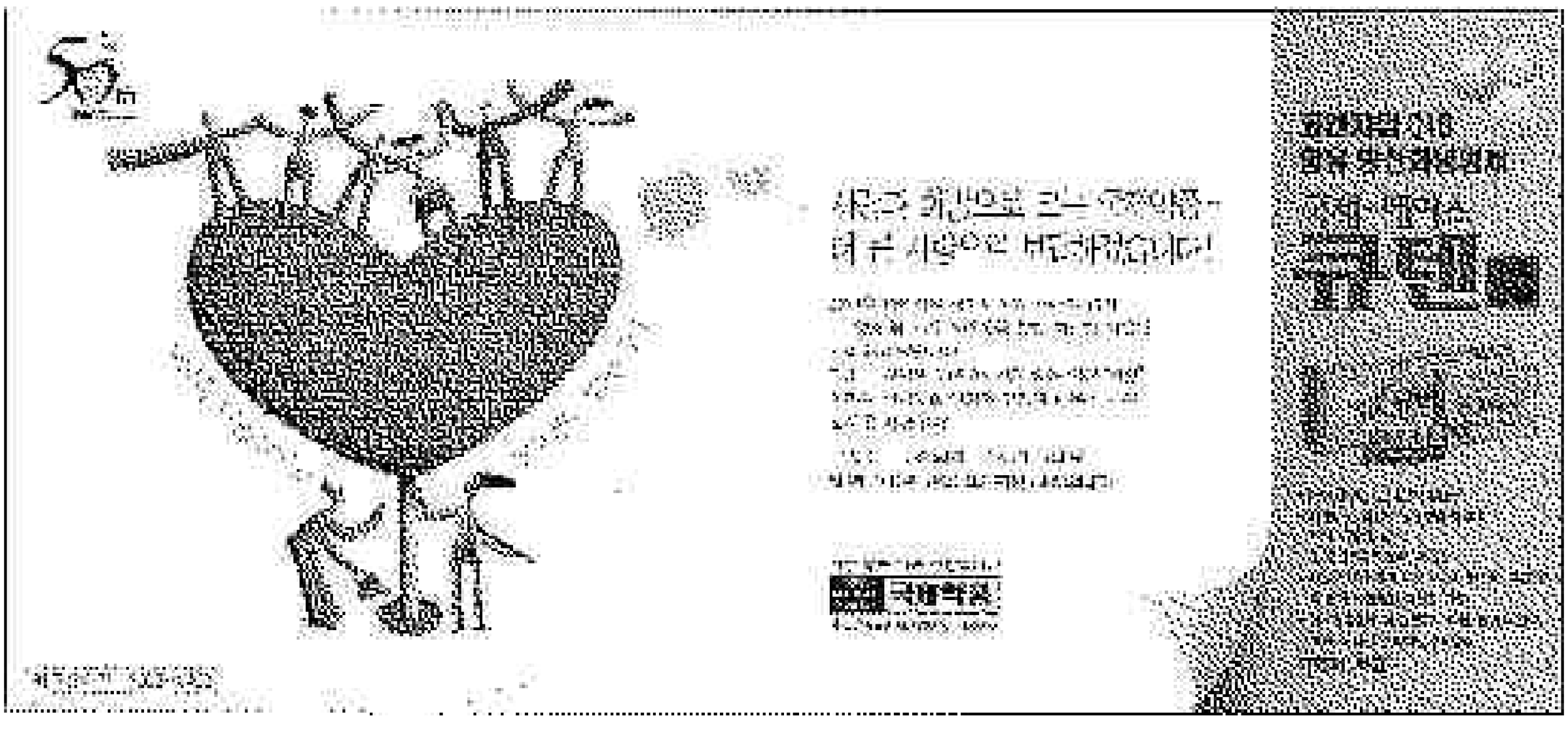
'견물생심' 스님 찜질방서 금품 훔쳐

쌍나팔

○…전남의 한 유명사찰에서 수련을 쌓고 있는 스님이 속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2일 찜질방에서 손님의 옷장열쇠와 금품을 훔친 전남지역 모 사찰 승려 A(4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19)씨의 옷장열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A씨는 물건을 훔치던 중 찜질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잠복 중인 경찰에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에서 "순간 이성을 잃어 남의 물건에 욕심이 났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